

논개고을 푸른장수

탄신 433주년 · 제40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

의암주논개축제

Ju Nongae Festival



2007. 10. 12 金 ~ **10. 13** 土 (2일간)

장수군 일원

주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논개고을 푸른장수

군민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꽃 피운다.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한다.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정방침

세계 최고의 농업 · 건강 중심도시 장수

- 1. 보람을 이루는 경영 · 행정
- 1. 모두가 잘사는 농업 · 복지
- 1. 특성을 살리는 문화 · 관광



군의 꽃 / 산철쭉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정 답 게 아 - 림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앓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립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 이루세

(후 령)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 탄신 433주년 · 제40회 군민의 날 기념 |
의암 주논개 축제 일정표

구 분	행 사 명	시 간	장 소	비 고
10월 12일 (금)	군민체육대회 (12개종목) • 축구, 배구, 씨름, 협동줄넘기, 게이트볼 치고 돌아오기, 투호, 고리걸기, 공차넣기, 삼절 마라톤, 2인삼각경기, 400m계주, 럭비 공차고 돌기	09:00~18:00	공 설 운 동 장	
	농악시연 • 호남좌도농악	18:00~18:30	의 암 공 원	
	전야제 • 아코디언 연주 · 전야축하공연 · 불꽃놀이	18:30~21:00	의 암 공 원	
10월 13일 (토)	제례봉행	09:00~09:50	의암사영정각	
	기념식	10:30~11:30	의 암 공 원	
	군민화합한마당 • 전북드림싸운드 연주 • 군민노래자랑 · 초대가수 공연	11:30~13:30	의 암 공 원	
	주논개상 추대식 • 추대자 시상 • 논개일대기 창작무용 • 웅립축하공연	13:30~15:00	의 암 공 원	
	문예체육관개관식	15:30~16:30	문 예 체 육 관	
	논개오페라공연	16:30~18:00	문 예 체 육 관	
	푸른음악회	19:00~21:00	의 암 공 원	
부대 행사	경로잔치 • 대상: 관내 65세 이상 노인 • 내용: 다과 및 중식	10.13 (11:30~13:00)	의 암 사	
	사진 · 시화전시회 • 사진: 장수사우회 • 시화: 문인협회	10.13	의 암 사	
	의암백일장 • 참가대상 - 관내 초 · 중고생, 일반인	10.5	의 암 사	
	풍물야시장 • 전통음식 먹거리 장터운영	10.12~13	의 암 공 원	
	페이스페인팅 • 미아방지 명찰 달아주기 •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	10.13	의 암 공 원	

의암주논개 일대기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

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위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관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희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희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틈틈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희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중 가장 처참했다

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희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간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鶻)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



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희가 이끄는 호남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희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이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희,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

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 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오늘은 의암 주논개 탄신 433주년과 제40회 군민의 날입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군민과 더불어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참해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예의 군민의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술한 사람들이 왜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많은 죽음 중에서도 전공을 세워 후세에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사람이 어찌 하나들이요 마는 그 중에서도 불멸의 성웅 이충무공과 제2차 진주성 전투시 왜장 게야무라로꾸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순절하신 의암 주논개님은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꽃피어 질 것입니다.

우리가 님의 죽음을 의열로 숭앙하고 기리는 뜻은 국은을 두텁게 입은 사대부들도 국난을 당했을 때 자기 한 몸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님은 아녀자의 몸으로 의로운 죽음을 마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한 몸 던져 살신성인 하므로서 전란으로 암흑 같던 이 강산을 해와 별처럼 흰히 비취 기진맥진한 겨레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 넣어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위대하신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33주년을 기리는 축제에는 님이 뿌린 3대 정신, 첫째 제 몸을 불살라서 주변을 밝힌 인애(仁愛)정신, 둘째 패권주의에 맞서 끝내 항거한 의용(義勇)정신, 셋째 아녀자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지아비를 사랑한 충렬(忠烈)정신을 가슴에 새겨 국가사회에 헌신 봉사하므로써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는 분을 의암 주논개상(像)으로 추대하는 행사를 거행합니다. 이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는 논개골 푸른장수의 깃발 아래 하나로 화합하여 두둥둥 큰 북소리 울리며 님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위대한 장수건설에 대동 단합 합시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0월 13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 김 진 영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지절에 마음까지 풍요해지는 수확의 기쁨과 함께 의암주논개 탄신 433주년 및 제40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정세균 의원님과 자매결연 시군 및 각 시장군수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재경향우회원님들의 장수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군은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의암주논개님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백용성 조사가 태어나신 유서 깊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아녀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논개님의 의(義)와 열(烈)은 각박한 현대사회에 새롭게 되새겨야 할 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충절을 이어받아 그분의 넋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군도 예전의 생산위주에서 전문기술과 마케팅이 가미된 다각적인 농업정책을 바탕으로 소득의 안정화를 꾀하고 문화, 복지, 교육 정책을 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다움, 인간다움이 묻어나는,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정성어린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의암주논개 탄신 433주년 기념 및 제40회 장수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의암주논개축제 준비에 애써주신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암주논개님의 거룩한 충절과 기상이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길 바랍니다.

2007년 10월 13일

장수군수 | 장 재 영



담장 너머의 코스모스와 풀벌레 소리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들녘은 농부들의 땀결음에 분주하고,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가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의와 충절의 고장,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암 주논개 탄신 433주년> 과 <제40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는 의암 주논개님의 정신을 선양하고자 논개사의 재정립과 세계 속에 여인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축제이기도 합니다. 장수군민의 날 축제를 겸하는 이 자리가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완연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분이 절로 듭니다.

한미 FTA와 농촌의 고령화, 기후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으로 우리 농촌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충효와 충절을 바탕으로 당당히 일어난 우리 장수인의 굳은 의지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이웃간에 우의를 다지고 연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군민체육대회와 군민화합한마당,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주논개상을 추대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충·효·열의 논개정신을 실천한 훌륭한 분들을 추천받아 최종으로 성계옥 여사님이 추대되었습니다. 뜻깊은 일입니다. 성여사께서는 진주기생이 별도로 제를 모셨다는 기록을 밝혀내서 의암별제를 해마다 모셔왔습니다. 누구보다 주논개상에 걸 맞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여사의 업적은 이번 수상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리라 확신합니다.

온가족 모두가 양일간 준비된 행사를 최대한 즐기고 참여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향에서 정든 고향을 그리던 분들도 장수사람의 정과 아름다움을 한껏 담아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논개정신선양회와 장수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지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07년 10월 13일

국회의원 | 정 세 군

한국여인의 영원한 충절의 표상인 주논개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의암주논개축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주논개님 그리고 독립운동가 33인중 한분이신 백용성 조사의 성지가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또한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관광휴양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자 금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해발 700M에서 사육되는 청정한우와 토종돼지, 경주마육성목장 등 지역개발이 활기차게 준비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희망의 고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자원과 유서깊은 고장에서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농악공연, 향토농산물 소개 등 다양한 향토문화제전으로 꾸며지는 의암주논개축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창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특색있는 전국 관광축제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흥겨움을 더하고 지역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논개축제를 통해 바쁜 생활속에서 잊혀져가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순박한 인정과 충절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정 장수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번 축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07년 10월 13일

전라북도지사 | 김 완 주



청명한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풍요로운 계절에 『의암주논개 탄신433주년과 제40회 군민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암주논개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항상 깊은 애향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산지오지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중의 한곳 이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고, 고랭지의 장점과 깨끗한 자연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시책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느 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지역으로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우, 원예작물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 연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명실공이 중부이남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장수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개장한 경주마목장과 말산업 클러스터사업이 완공되면 내륙 최고의 말 중심지로 사람과 자연 그리고 말이 어우러지는 장수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성장기반 위에서 주민의 삶의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9월 농산물축제를 개최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찬 미래를 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성숙한 주인의식과 새롭게 태어난 공직자의 의지가 결합되고 각자가 역량을 십분 발휘할 때 밝고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축제가 군민이 화합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풍요로운 장수, 세계속의 장수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공으로 자랑스런 군민의장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 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3일

장수군의회 의장 | 김 홍 기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려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고 안타까워했는데, 황금들녘을 보니 결실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탄신 433주년 의암주논개 축제' 및 제40회 장수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수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날 교통, 정보, 통신 등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매우 편리하여 졌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오랜 세월,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을 차츰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룩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암주논개 축제'는 이 가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공연자들의 마음이 담긴 여러 행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정신을, 가족간에는 서로 아끼는 마음을, 연인들에게는 더욱 큰 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군민들의 애정 어린 손길로 가꾸고 만들어낸 장수의 자랑거리들은 잊혀져가는 향수를 불러 일으켜 축제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흠뻑 적셔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날을 축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의암주논개 축제가 널리 알려지고, 의로운 정신이 곳곳에 확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구경 많이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일은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친지 분들에게도 널리 권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암주논개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장수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축하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 김 병 곤



의암 주논개의 유적



- ① 논개 석상
- ② 논개 생가
- ③ 논개 생가지
- ④ 생장향수명비
- ⑤ 의암주논개랑생장지 사적불망비
- ⑥ 의랑루
- ⑦ 논개사당(의암사)
- ⑧ 의암사 기념관
- ⑨ 생가지 논개기념관
- ⑩ 영정각
- ⑪ 최경희장군 추모비





의암 주논개 축제



비둘기 축제





The Euiam Ju Nonggae Festival





이 德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회 등을 배향

방촌 황희(尙村 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 · 예조 · 병조 · 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영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 내)

三節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의암 주논개(義巖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0.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2000. 생가지 현위치 이전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 (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 (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 장항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 1997 장수의 표상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 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 · 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 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그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헌승이 순의리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弘,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문태서 장군(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 (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 (김상두)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 (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 (김상두)



▲ 의병대장 문태서 ·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정인승 선생(鄭寅承 先生)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정인승 선생 기념관(계북면 양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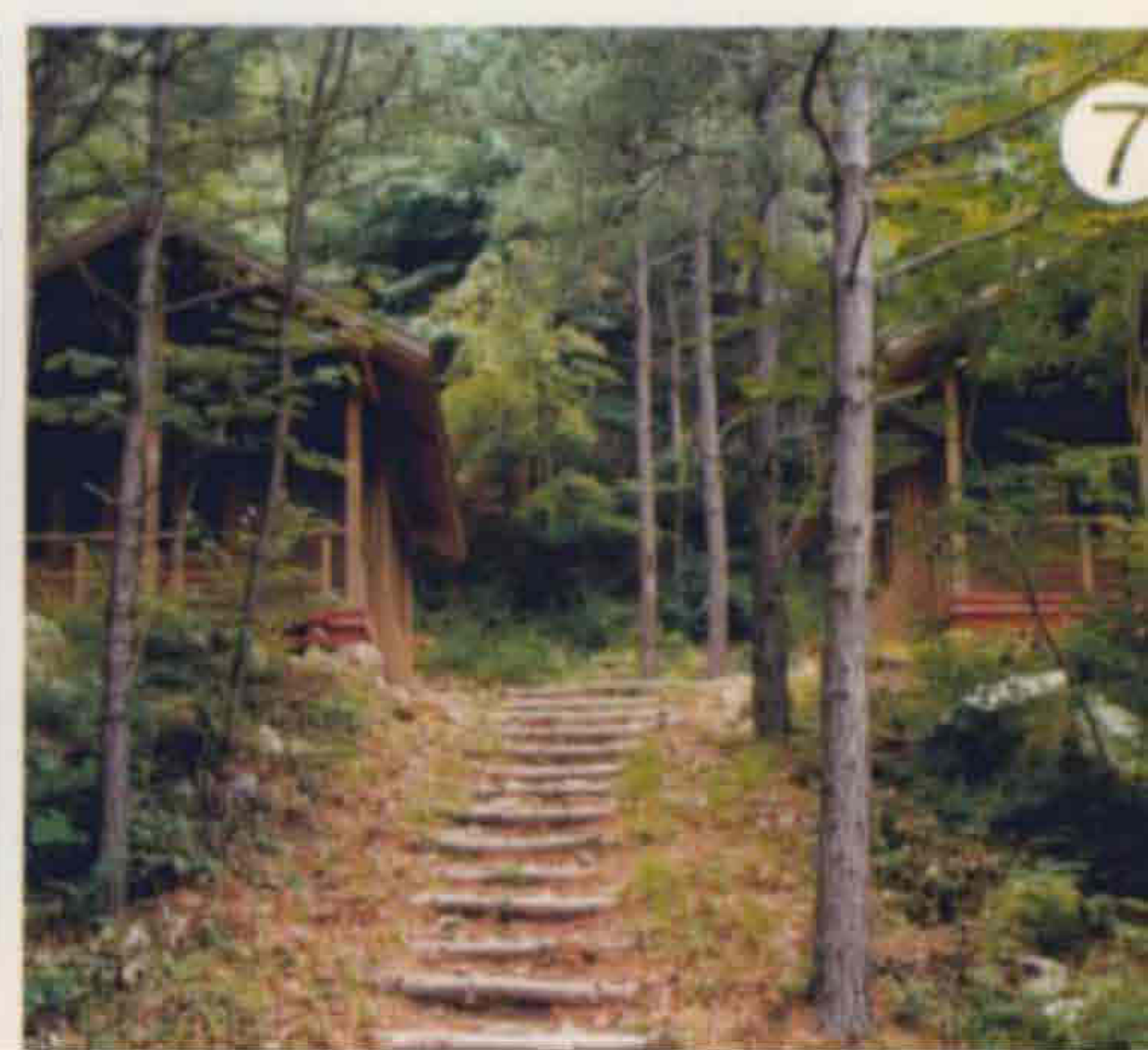


우리고장
관광명소



- ①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중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②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③ 어필각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조선조 영조 27년(1752년) 태종이 사간공 천곡 안성 선생에게 내려준 어필 왕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서면 오성리에 창건 하였다.
- ④ 방화동가족휴가촌 / 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⑤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⑥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⑦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 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청정지역 장수군 농·축산물은 안전합니다.



장수사과



장수 오미자



장수 태양초 고추



장수 메뚜기쌀



장수 청정인우



장수 토종흑돼지



장수 흑염소(흑보)



장수 전통 인과

“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장수
변화하는 농협·함께하는 농협
”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박형규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수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성근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제근

대한민국@녹색행복. **krFD**

한국농촌공사의 약속입니다

Korea Rural Community & Agriculture Corporation

한국농촌공사는 우리농촌을
효율적인 생산공간, 쾌적한 생활공간, 안정된 복지공간의
녹색행복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어촌 종합 포털사이트 (www.nongchon.or.kr)

은퇴후 전원생활, 농지은행, 귀농귀촌, 그린투어, 주택정보, 지역투자정보등
농어촌에 관한 알차고 요긴한 정보가 가득! 지금 클릭 해 보세요.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
www.ekr.or.kr



전라북도 대표기업 전북은행

전라북도에는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

전라북도민이 보내주신 성원만큼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해온 전북은행은
고객님의 금융생활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 최다(多)의 지점으로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도민의 금융생활을 풍요롭게 하기위한
전북은행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인터넷뱅킹 : www.jbbank.co.kr

■ 콜센터 : 1588-4477(상당선 연결 : 0)

논개

-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